마수 식탐스러운 각수 미노타우로스

클랜 어드밴스 서몬

원전: 그리스

클래스: 6

속성: 토양

다이달로스가 창조한 나무암소와 크레타의 여왕 파시파에가 아낀 황소의 교잡으로 태어난 마물 이명 아스테리오스로 불타오르는 용암과 같은 피부에 우두인신은 정렬을 상징한다

성장하면서 공복을 느꼈고 그 결과 많은 크레타 시민들이 희생되었고 크레타섬 국왕은 아예 책임을 묻기 위해 라비린토스라는 감옥의 설계도를 다이달로스에게 맡겼다.

이후 아스테리오스에게 주어진 것은 아기 시절부터 아낀 큰 도끼와 본인의 공복뿐 한 인간영웅에게 죽을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일 뿐이다

무조건 먹는 도끼(라브리즈)

아스테리오스가 어릴 때부터 아낀 양날의 도끼 크레타섬의 특수한 광물로 이루어졌으며 공격에 무조껀 토양속성을 부가하는 신에 필적할 만큼 무거운 무기이다

창조수시대 무렵 헤스파이스토스에 의해 만들어진 궁극의 도끼형 병기가 원형이며 상대를 먹으려 하듯 절단해버리는 불꽃의 무구

또한 미노타우로스가 같힌 미로와도 같은 놀림과 병행해 공격한다